노동 현장에서 유입된 대학가요

대학문화, 어디까지 왔나 <3>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과 여타 사회부문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학생운동은 한국사회의 특수성때문에 감당해야만 했던 '변혁운동의 주도세력'이라는 부담스러운 역할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학생운동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부문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이전에 학생운동이 수행해왔던 역할들은 발전한 노동운동의 몫이 되었다. 전체 운동속에서 노동운동의 지조적 위치가 확립되었다는 사실은 이후 변혁운동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조건짓는 가장 큰 변화이다. 이러한 운동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듯 진보적 음악운동에 있어서도 노동가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파업가를 필두로 한 이들 노동가요는 그때까지 진보적 노래문화의 주류를 이뤘던 대학가 노래들을 대신하여 전체 음악문화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노래가 노동자에게 전파되던 이전의 방식과 달리, 역으로 노동현장의 노래가 대학가로 유입되는 최근의 현상은 앞서 말한 변화를 잘 드러내 주는 한예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가요가 등장하여 전체음악운동에서 주도권을 확립하는 88, 89년간을 기점으로 대학가 노래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이전의 시기와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후의 시기로 크게 나누어 각 시기마다 작품들의 주요한 흐름과 성과, 한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대학가 노래문화를 이끌고 있는 대학 노래패의 변화와 새로운 전망 역시 다루어 질 것이다. 부족한 글이나마 앞으로 대학가 노래문화가 발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용층과 독자적인 유통구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제에 입각해서 본다면 일반 대중문화와 구별되는 대학가 노래문화가 형성된 것은 대체로 75년을 기점으로 한 70년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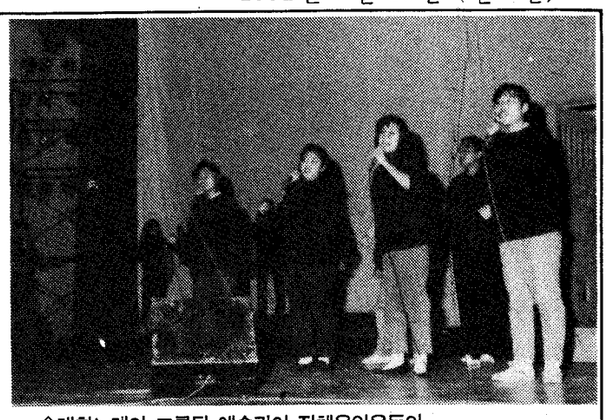
물론 이전에도 대학생들에게 불리워지던 노래들은 있었지만 그것이 대중가요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노래문화로 정립된 것은 아니었다. 70년대 중반, 특히 75년 긴급조치 7호의 발동은 학생운동의 양적 축소,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명확한 분리를 가져오게 된다. 시위가담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로 인해 이제 학생운동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결단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진 학생운동권은 학습을 통해 인식을 심화시키는 한편, 기존의 대중문화를 비판하고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김민기의 노래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재해석되면서 하나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게되고, 여기에 '오 자유'등 기독교 계통의 노래와 60년대부터 학생들이 불러왔던 해방가 등의 노래, 구전가요, 민요등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대학가 노래문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는 아직 소수에게만 향유되고 있었고, 유신정권이 붕괴된 80년 봄에서야 비로소 대중적으로 확산되어진다. 이 대중적 확산의 경험은 이후 대학가 노래문화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인 근본 토대가 되었다.

5월 광주로 막을 연 80년대에는 이전의 노래들과 다른 성격을 가진 노래들이 대학가 노래문화의 주류를 형성한다. 즉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대표되는 단조행진곡의 대두가 바로 그것이다. 70년대의 행진곡이 장조의 명랑한 분위기에 관념적이고 구호적인 말을 열거하는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80년대의 노래는 단조의 비장함을 기본적인 정서로 하며 가사에서도 개인의 감정이나 집단적 의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80년 중반기는 대학가 노래문화의 최전성기라 말할 수 있다. 대학가 창작곡은 작품의 양이나 그 질적 수준에 있어 전체 음악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학가 노래문화가 성장한 것은 대학 노래패의 양적 확산에 힘입은 바 크다. 83~85년간 우후죽순격으로 창단된 대학노래패들은 취미서클로 출발하여 노래운동서클로 변화한 70년대의 노래패들과 달리 처음부터 운동적 성격을 명확히 띠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운동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대학노래패들은 노래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새로운 창작곡을 만들어냄으로써 대학가 노래문화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88~89년간 노동가요가 전체 민족음악운동의 주도적 위치를 확립하면서 대학가의 노래문화는 노동가요에 의해 선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가 노래문화가 노동가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체 민족음악 운동권에서 노동가요가 이룬 선도적 성과를 담당하고 낙관적인 정서, 새로운 인식의 질을 획득한 것은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전 계층이 공유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 말한 현상은 한편으로 대학가 노래문화가 전체음악운동의 발전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대학가에서 만들어진 노래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이지 못한 관념적 언어나 이미 감동력을 상실한 상투적 문구를 조합한 듯한 작품들이 많이 보이고, 당연히 이 노래들은 대중들에게 널리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가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가요가 성취한 성과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그중에 '전대협 진군가' '결전가' '진혼곡' '가야하네'등 학생들의 정서를 잘 표현한 노래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수의 작품들이 학내 대중들의 감동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 원인을 상세하게 규명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자면 이는 예술관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인듯하다. 예술이란 형상을 통한 인지적, 정서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학적, 이론적 인식에 형상을 입히는 일종의 기술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예술적 형상화의 능력은 기술의 연마나 학습으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세계에 대한 폭넓은 정서적 체험과 구체적 인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술은 단지 이러한 것을 쉽게 하기 위한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성급한 결론일지는 모르지만 대학가 창작곡의 감동력 회복은 대중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정서적 교감, 나아가 다양한 생활경험이 체득될 때 가능해질 것이다. 올바른 창작은 기교의 연마나 학습의 심화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단계에서는 앞서 말한 경험들을 내적으로 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한편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대학 노래패의 양적 성장은 이 시기에도 계속되어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 노래패가 생겨나게 되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단대, 과 노래패의 확산이다. 이들 노래패는 진보적 노래문화를 보급하는 기초적인 교두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과 노래패들은 학생운동의 대중화에 따라 건설된 기초 대중조직 이라는 점에서 중앙노래패와는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대공연이나 창작보다는 과, 단대의 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된 활동 프로그램 소공연이나 정기적인 노래부르기 모임 등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제는 단위 노래패보다 중앙노래패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다. 요약하면 대중과 더욱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위 노래패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야 하며 성격상 취미서클로 전락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내용은 중앙노래패에서 고민되고 지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단위 노래패의 역할이 정확히 주어지고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누구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하게 될때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확산과 조직은 대학가 노래문화의 새로운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문예운동 역시 전체 변혁운동의 한부문이기 때문에 운동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대학가 노래운동이 보여준 큰 변화의 이면에는 한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들이 놓여있다. 그중 하나가 80년의 광주이고 또다른 하나는 87년 6월항쟁과 7·8·9노동자대투쟁이다. 대학가 노래는 80년 광주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80년대 중반 노래운동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반면 87년의 변화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일견 침체된듯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예술'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의 극복은 잘못된 예술관을 극복하고 보다 대중들과 밀착된 활동을 벌여나감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대학 노래팀들의 보다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안 석 희
〈예울림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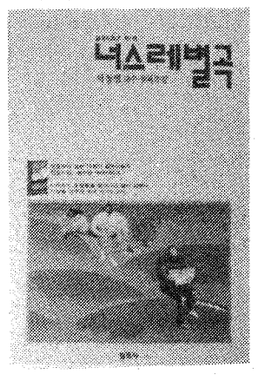


◇대학노래의 그릇된 예술관이 전체음악운동의 발전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단순학습, 기술에 치중하는 그릇된 예술관 버려야
단위 노래패에 대한 중앙의 고민과 지도 시급

예리한 너스레로 푼 현실모순

'…별곡'으로 본 대학가 언어



'이 시대의 대학가 유머는 독설일 수 밖에 없다. 독설과 냉소와 풍자만이 이 시대의 천박한 아이러니를 견딜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시작되는 서정범(국문학)교수의 '너스레 별곡'이 발행되어 출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서정범교수의 별곡 시리즈가 '학원별곡'(85)을 시작으로 '어원별곡' '수수께끼 별곡' '이바구 별곡' '가라사대 별곡' '허허 별곡'에 이어 제7탄 '너스레별곡'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너스레'라는 말은 '말이 많다' '익살스러운 말'이라는 뜻으로, 말의 수효도 많지만 그냥 지루한 말들이 아니라 웃음을 자아내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즉,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현실의 어두운 면을 너스레를 통해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있으며, 그 웃음은 바로 비극적인 웃음일 뿐 아니라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활력소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너스레별곡'은 정치시리즈, 수수께끼 시리즈, 욕설시리즈 등 총 42개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허허별곡'에서 9종이 빠지고 람보·할머니·알쏭달쏭 시리즈 등 13종이 새로 등장한 것이다.

이 글에 나타난 90년도 정치시리즈의 특징은 여권과 함께 야권도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어있다는 것인데, 이는 야권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신이 더해감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다.

수수께끼시리즈, 식인종시리즈, 바보시리즈 등 대개의 내용들이 극도로 대립하고 모순된 사회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을 담고 있다.

도박사의 축의금이 '즉석복권'이라는 수수께끼는 도박과 즉석복권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배금사상과 사행심리를 풍자한 것이며, 식인종시리즈는 인간의 존엄성파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 인간을 약육강식의 짐승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비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바보시리즈'중에는 바보가 잠을 자다가 파리가 안에 들어갔을 때 이 파리를 잡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안에 파리약을 뿌리고, 하나는 목구멍까지 유인해 가을 조이고, 나머지 하나는 혀로 눌러버린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또한 어떤 일을 순리로 풀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해결하려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책은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자료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그대로 수록하려 했기에 욕설시리즈, 부녀시리즈, 성시리즈 등에서는 외설적이고 저급한 내용들도 많이 눈에 띈다.

작자는 저급한 욕설이 생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것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사용, 아직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본말의 잔재는 언어문화차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올해 생기는 너스레는 좀 더 밝고 건강한 너스레였으면'하는 서교수의 바램이 이 봄 신선한 바람으로 다가온다.

〈이금주 記者〉

여·야 함께 비판의 대상 삼은 정치풍자
일본말의 무분별한 사용 심각히 지적되

대중취향 탈피…비평 연구 활성화 모색

영화전문잡지 나온다

상시대, 영화에 대한 올바른 정
시을 제공하는 계간 『한길영
◇영화의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잡지의 창간을 서두르고 있다

문화탐방

창간 맞은 전문잡지 '한길영화'

기존의 대중 취향적 영화잡지나, 영화권 밖으로는 대체로 전달되지 않는 영화학회지와는 달리 영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영화전문잡지 '한길영화'가 4월말 창간된다하여 이책을 출판하는 한길출판사를 찾았다.

아직 완성된 책은 접할 수 없었지만 창간사에서 '우리는 상업주의에 묻혀버린 유익한 영화를 찾아서 널리 알리는 가운데 올바른 기준을 찾아내고 이를 대중속에 세우고자 한다. 계간 '한길영화'를 펴내는 우리의 목적은 영화예술의 창작과 이론 모두를 포괄하는 올바른 영화문화의 정착에 있다'라고 밝혔으며, 정보의 확장과 관점의 확립 중 어느 하나에 결코 치우치지 않는다'고 밝힌 주장을 볼수 있었다.

이 책의 기획편집위원은 이효인(영화평론가, 민족영화연구소), 강한섭(영화평론가, 서강대 커뮤니케이션센타), 주진숙(영화평론가, 중앙대)씨인데 이들은 각자 영화에 대한성격은 다르지만 '영화의 전문적인 정보와 해설을 대중적 필체로 전달함과 동시에 상업주의에 빠진 현 영화 흐름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며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창간 취지는 동일하다.

한편, 이번 창간호를 펴내면서 이효인씨는 '이 책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펴내는 영화전문잡지라는 점에 시험대에 올려질 것입니다. 사업적 이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평균유지를 하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말한다.

현 영화의 비판적 분석과 방향성 제시

〈이효숙 記者〉

40만 학우에게서 지혜를

"4월 17일은 40만이 하나 되는 날"

이 날은 구국의 횃불 제4기 서총련이 출범하는 날 입니다

출범식을 훌륭히 사수하여 상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어제낍시다

의의와 목표

1 겨울방학과 3·4월에 각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의 총화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후의 투쟁을 힘차게 준비하는 결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학우들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제 4기 서총련의 상반기 총노선을 대중적으로 선포하여 청년학생의 상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어제끼는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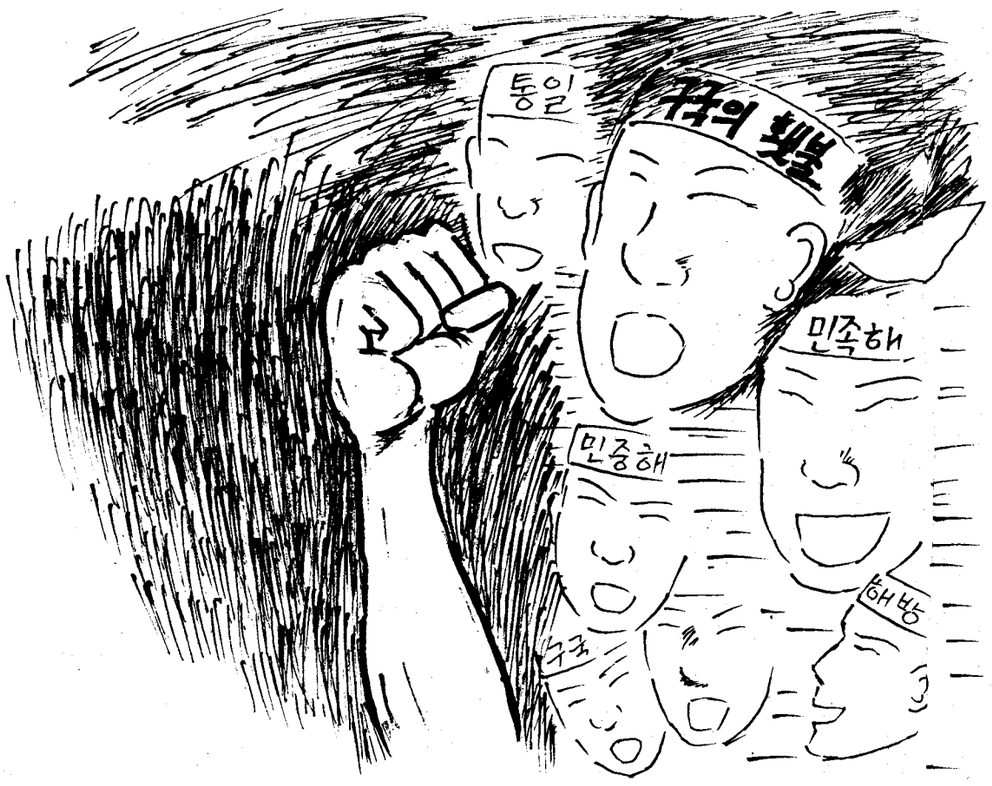
3 학우들의 대표인 대의원들의 힘찬 결의로 옹립되어진 서총련 의장님을 출범식에서 40만 학우와 함께 책임시겠다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구국의 강철대오 제5기의장님으로 학우들 모두가 옹립하는 결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4 월 17일 한양대에서 열리는 서총련 출범식은 40만 학우가 함께하는 것이기에 철저하게 각 과, 각 단대 단위로 준비돼야 합니다. 15, 16일 과 분임토의 속에서 서총련 출범식이 가지는 의의와 목표를 충분히 공유하고 4·19에 대한 토론도 병행하여 출범식에 결합합시다.

분임토의는 출범식때 모범사례를 취합하여 사례를 들어보고 각 단위 결의가 담긴 대자보는(당일날 한양대 곳곳에 부착해야 함)문화행사시 좋은것을 골라 시상할 것입니다.

4월19일은
서울시내 곳곳에서 '노태우 퇴진 2차 국민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힘차게 동참합시다



구구의 횃불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서울지역 대학신문 기자연합

40만 학우와 함께 투쟁을

40만 학우에게 승리를